

「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1월 15일, 박선하 의원 등 19인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

(2024년 1월 26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선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
차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
인은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.
- 이에,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
규정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충전시설을 이
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안함.

다. 주요내용

-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(안 제9조의2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현주)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애인 충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전기자동차 이용권리를 보장하고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·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5조제1항은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신설 규정한 것은 도내 전기차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이 42기로 전체 충전시설 13,554기의 0.3%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시설·상업시설·차량정비시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.
- 안 제9조의2제1항이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의 주차공간을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준을

따르도록 한 것은 교통약자의 편의 보장을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적정하고,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의 보호장치는 충전기와 휠체어 사이 공간이 최대 30c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기준인 최대 25cm 보다는 넓지만 사업추진 시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.

다. 종합의견

- 급속하게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에 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, 설치 기준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.
-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,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